



정교회주보

제2411호

2023.3.12

한국 정교회 대구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다프니 수도원은 그리스 아테네 북서쪽 외곽에 자리 잡고 있으며, 6세기 말에 세워졌다. 현재는 성당(사진)만 남아있다. 성당은 비잔틴 시대의 예술적 측면에서 중세 건축의 걸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찬란한 내부 금색 모자이크는 유명하다. 수도원 복원 사업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역사와 건축적 가치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순절 제 2 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성 테오파니스 고백사
(제6조 • 조과 복음 6)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제6조 부활 찬양송 82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찬양송 .. (비교정 축일 성가집) 25
성당 찬양송
사순절 시기송 223
사도경 : 히브리 1,10~2,3 229
복음경 : 마르코 2,1~12 138
성모송 62

주님 자비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여, 저에게 회개의 문을 여소서. 저
극히 불결한 이 몸의 성전을 이끌고 제 영이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밤새우나니, 당신의 크신 자애와 연민 어
린 사랑으로 당신의 선하심 안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오,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크신 선하심으로 저를 불쌍
히 여기소서. 당신의 무한한 자비로 제 죄를 없애주소서.

수많은 내 악행을 기억하면 죄인인 저는 두려운 심판
의 날이 무섭나이다. 당신의 긍휼과 연민을 바라면서 제
가 다윗처럼 외치나이다.

오, 하느님이시여, 당신의 크신 선하심으로 저를 불쌍
히 여기소서.

'뜨리오디온 전례서'에서

죄로 인한 영혼과 육신의 병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죄는 마음의 병을 주기도 하지만, 육신의 병을 주기도 합니다. 병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자연적으로 얻은 병, 둘째는 하느님이 주신 병, 셋째는 사탄이 준 병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언급한 중풍병자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오랫동안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밤낮 게으른 채 술에 취하고 부도덕하고 난잡한 삶을 살며 죄를 지었고 그래서 병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주시면서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 받아야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상에 누워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았는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런 힘든 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을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처지를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삶의 희망을 잃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

며 하느님의 품에 다시 안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나날을 보내며 지내던 그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의 온 희망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 뵈어서 병을 치료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을 알게 된 가까운 사람들은 드디어 그가 갈망하던 예수님을 뵈게 하여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그를 처음 보셨지만, 그가 오랫동안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지난날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언제나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할 온전한 약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치료약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효과가 있고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언제나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병도 치유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세상을 구원한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오래전, 우리 생활 속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한 작은 소녀가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력 끝에 소녀를 발견하였지만, 소녀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아서 자신에 관한 어떤 사항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어떤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번호,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탓에 기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찰과 의사들은 잠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검사가 소녀에게 다가가, 알고 있는 노래를 한 곡 불러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잠자리에 들 무렵 자기 엄마가 들려주었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그것을 얼른 녹음하였고, 곧 라디오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곤 몇 시간이 못 돼서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식도 힘을 쓰지 못하고 사그라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지식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더러 지키라고 맡긴 것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소중한면 소중한수록 아이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책이나 그림, 공, 야구 글러브, 휴대폰 등은 잃어버리겠지만 우리 영혼에서 나와 전해진 것들은 아이의 삶 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은 자신을 따뜻하게 해줬던 그 동지를 찾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과 교육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성인들조차도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하느님의 교회 속 삶으로 이끌어주라고... 부모님이 성당 안에서 초에 불을 붙이고, 성화에 입을 맞추며, 기도하고, 성체성혈을 받으며, 용서하고, 자녀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처럼 존중하며 소중히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쌓이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며, 결코 망각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도록 합시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과
- * 수요일(3/15) 오후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 금요일(3/17)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3 스타시스)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바랍니다)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추도식**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9개월을 맞아, 오늘 모든 성당
에서 성찬예배에 이어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소 식

■ 사순절 예배에 참례합니다

대교구는 올해의 사목 지침을 통해, 신자들이 기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주중에 거행되는 사순절 예배에 참례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임시 휴원

내일(13일) 아가티 수녀와 마리나 예비수련자가 수련과 교육을 위해 그리스로 출국하여 5월 말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평 구세주 수도원은 휴원합니다. 수도원 방문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성당 부인회, 수도원 방문

지난 4일(토), 부인회 10명이 수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당의 기도식에 이어 소티리오스 대주교 묘소에서 추도식을 거행했습니다. 준비해 오신 점심 후에는 '사순절을 맞아 다시 살피보는 영적인 삶-먼저 할 것'이란 내용으로 시청각 교재와 동영상을 곁들여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인의 가르침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초보 수도사가 조언을 구하려고 한 사부를 찾아갔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많은 유익을 얻게 된 초보 수도사는 영적인 만족감 속에서 그만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사부에게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한 후 이렇게 말했다.

“사부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오늘 제가 당신의 기도 시간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선한 사부가 호의를 보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이보게, 내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대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들어 그대의 기도처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네.”